

중국 친구들과 우정 나누며 글로벌 감각 쑥쑥

광주 진월초등학교(교장 이동희)가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3년째 이어 오고 있는 중국 명문 사립학교와의 자매결연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 교육계의 연구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과 진월초교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명문 사립학교인 상덕실험학교 초등학생 37명과 교사 5명이 지난달 25~28일까지 3박 4일동안 진월초교를 방문, 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 등을 하며 우정을 다졌다.



최근 광주 진월초등학교를 방문한 중국 상덕실험학교 학생들이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를 관람하고 있다.

이들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주요 명소를 비롯한 광주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베니스 유리 공예전을 관람하는 등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쌓았다.

진월초교 학생들도 중국 친구들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3박 4일동안 서투른 영어와 '손짓 발짓'을 동원해 대화하는 등 국제언어 감각을 키웠다.

진월초교 6학년 장서린(12)양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 가요를 우리들보다 많이 알아 놀랐다"며 "나도 겨울에 상해에 가려면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양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황첸유(13)양은 "홈스테이 가족의 도움으로 붉은악마가 폐영회관에서 월드컵 응원을 한 것과 한복

광주 진월초교 상하이 상덕실험학교와 3년째 교류행사

학생·교사 42명 광주 찾아 3박4일 홈스테이·추억 쌓기

입어보기, 베니스 유리공예 관람이 가장 인상 깊었다"면서 "광주에서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진월초교와 상덕실험학교 학생들이 이처럼 끈끈한 인연을 맺게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동희 진월초 교장은 당시 한국교원대의 교장해 임명 후 중·단교 코스인 상덕실험학교를 방문한 뒤 자매학교 결연을 맺었다.

이동희 교장은 "중국 최고 실력의 학

이 원적인 중국의 대표적인 과학영재 학교다.

이동희 교장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선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 국제적 감각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올 겨울 방학에는 우리 학생들이 상덕실험학교를 방문, 중국의 문화 등을 배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초교에서 자체적으로 외국 명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3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만큼 성공적인 케이스"라면서 "외국 명문학교와의 자매결연이 초등학생의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에서도 연구모델로 삼고 있다"고 극찬했다.

12년째 초·중·고교 통합코스로 운영되는 상덕실험학교는 지난 2003년 영국의 명문학교인 이튼스쿨을 벤치마킹해 설립했다.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교 졸업때까지 전원 기숙사 생활

전남대 '국제여름학교' 인기

4주간 13개 과목 개설...미·중·캐나다 등 대학생 참여

전남대(총장 김윤수)가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여름학교(International Summer Session)를 개최, 국내외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대는 올 여름 미국 미주리대학, 델라웨어대학, 캐나다 위니펙대학, 대만 성공대학,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교수 10명과 국내 유명교수 3명을 초빙해 국제여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21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4주간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언문학세미나, GIS개론, 영어학개론, 경제원론, 한국문화의 이해 등 13개 교과목을 개설했으며, 수업을 모두 영어로 진행해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을 물론 국적이 다른 학생들 간의 자

연스러운 문화교류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전남대 학생들이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과 한 강의실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국제여름학교에는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 4명, 필리핀 델리만대학 4명, 중국 해양대학 5명, 캐나다 위니펙대학 1명 총 1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공동 관심사를 갖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아주 특별한 방학'을 보내고 있다.

한편 전남대는 현재 29개국 168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 대만·독일·미국·브라질·인도·일본·중국·캐나다 등 9개국 28개 대학에 125명을 교환학생으로 보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학생 140명 해외연수

여름방학 맞아 탐방·산업시찰 등 13개국에 파견

'글로벌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호남대(총장 장병완)가 여름방학을 맞아 세계 13개국에 140여명의 학생을 파견한다.

지난 2008년부터 '지역을 세계로, 세계를 지역으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Glo-Cal)대학'으로의 재도약을 선언한 호남대는 이번 방학 중 해외탐방과 산업시찰·취업연수·해외봉사 등에 학생들을 대거 파견해 해외 현장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인재 양성차원에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세계교육기행탐방대는 모두 13개 팀 52명이 영국·독일·미국·호주 등 10개국으로 파견돼, IT와 영상산업, 의료보건, 상품 마케팅 분야의 선진 사례를 둘러 볼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한 축구학과는 영국의 맨유, 리버풀 등 프리미어 리그 명문구단과 축구 관련 대학과 대학원 등 선진 축구 현장을 방문

을 통해, K리그 시민구단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배낭여행 형식으로 진행되는 세계교육기행탐방대는 학생들이 여행주제 및 국가를 직접 선정해 다양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외국문화나 제도 등의 체험을 통해 해외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미국 LA와 하와이, 일본 도쿄 등의 대학으로 파견되는 해외취업연수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25명을 파견해 오는 8월 말까지 집중적인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한다.

러시아·내몽골·라오스·필리핀 등 4개국으로 파견되는 해외봉사단 35명은 7월에서 8월 까지 현지에서 IT교육과 노력봉사는 물론 한국어와 태권도, 아동교육, 사물놀이 등의 교육봉사 등을 통해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뷰티아카데미' 개설

광주여대(총장 오장원)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뷰티서비스사업을 선도할 뷰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한 '뷰티아카데미 1기 교육과정' 개강식(사진)을 갖고 실무강의에 들어갔다.

'뷰티아카데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뷰티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신트렌드 및 고급기술을 습득하고, 한국 뷰티서비스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광주여대 홈페이지(www.kwu.ac.kr)나 미용과학과(062-950-39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02-2194-



7259)으로 하면 된다.

한편 '뷰티아카데미'는 전국의 주요 6개 대학에 개설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북부 서경대, 수도권 남부 수원여대, 대전·충청권 대전대, 광주·전라권 광주여대, 대구·경북권 대구보건대, 부산·경남(제주)권 동주대학이 각각 선정돼 교육과정을 맡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학생·교수 16박 17일 국토대장정

여름방학을 맞아 조선대(총장 전호중) 학생과 교직원들이 국토대장정에 나선다.

지난 2004년 시작한 조선대 학생들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국토대장정은 학생들이 국토를 걸으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학교와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이 단체생활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 참가해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애교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일정은 오는 5일 학교에서 출발해

나주→무안→목포→제주→완도항→해남→강진→화순을 거쳐 21일 학교로 도착이다. 16박 17일 동안 399.7Km에 이르는 대장정이다.

이번 제7기는 여학생 18명을 포함해 학생 52명이 참가하며, 이대음 기호조 정실장(경상대학 경영학부)과 김재수 교수(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가 5박6일 일정을 학생들과 함께 걷는다.

배준수 학생대표는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취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정이 길어 힘들 수도 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전 구간을 완주해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글로벌 IT인재 활용사업' 대학에 선정

조선대(총장 전호중)가 '글로벌 IT인재 활용사업' 대학으로 선정돼 2년 동안 사업비 3억 4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IT인력양성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IT인재활용' '대학IT 연구센터'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서울어코드 확산' 등 4개 사업의 신규과제 수행자로 대학 24곳을 선정했다. 조선대는 광주·전남시 유일하게 글로벌IT인재활용 지원대학에 선정됐다. '글로벌 IT인재 활용사업'은 해외 우수 인재

를 유치해 국내 유학 및 산업체 연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선대를 비롯한 경희대·배재대·성균관대 등 9개 선정 대학은 해당 외국인 유학생의 석사과정 학비를 보조받는다.

조선대는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 아시아권 우수 유학생을 유치해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실시, 산학연계를 통한 한 국 성장의 외국인 산업인력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북장터

전북주요인물

전북장터

0621576-8600

장속바다장어

장속바다장어

0621383-1110